

부처님 말씀과 함께 무더위도 안녕~

맛갈스런 여름휴가를 위한 마음의 팔빙수! 지성이 넘치는 불자에게 권한다. 불교출판문화협회 회원사가 선정한 휴가의 참맛을 돋우어 주는 불서 '잇 북(it book)'이다. 떠나는 곳이 어디든 부처님 말씀과 함께라면 마음의 보약 한첩 따로 없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 동국대출판부 |

왜 인도에서 불교는 멸망했는가
호사가 슈윤지 지음 | 김호성 옮김
한결음더 펴냄 | 1만2000원

부처님의 고향 인도. 그러나 인도는 불교가 없다?

인도불교 멸망의 다양한 원인 가능성을 7~8세기 서인도 불교 사정을 전하는 이슬람 사료 <차츠나마(Chachnamah)>에 근거해 접근한다. 한 종교의 멸망을 넘어 문명의 멸망을 의미하는 관점이다. 불교의 자타불이(自他不二)가 시대와 국가의 중심 이념으로 자리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 동쪽나라 |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스님 지음 | 류시화 엮음
동쪽나라 펴냄 | 8000원

한 여름내 줄음에 빠져 무가치하게 보내던 당신을 강원도 산골 오두막으로 초대한다. '나는 누구인가' 거듭 묻는다. 내세움 없이 온전한 넉넉함은 스님의 절제미를 오롯이 담는다. 침묵의 풍요가 더없이 그리워지는 날 함께하기 좋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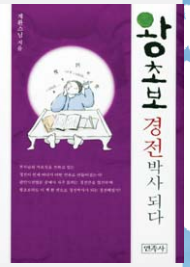
<산에는 꽃이 피네>는 스님이 여러 해 동안 법문하신 말씀을 엄선한 첫 어록집이다. 그 말씀 배경에 놓인 침묵의 세계를 류시화 시인은 고스란히 전하고자 노력한다.



| 민족사 |

왕초보 불교·경전·수행박사 되다
석지현·윤창화·일지 | 계한 스님
고명석 지음 | 민족사 펴냄 | 각 9500원

왕초보를 위한 불교·경전·수행의 정수만 속속 뽑았다. "불교는 복잡해" "경전은 어려워" "수행은 심오해" 노래하던 왕초보를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는 불교입문서다. 영어를 듣기·읽기·쓰기·말하기 순서로 공부하듯 기본기부터 탄탄히 왕초보시리즈 순서대로 하다보면 어느새 일취월장 불교박사가 된다.



| 법공양 |

법구경 : 불타의 계승
등하 옮김 | 법공양 펴냄 | 9000원

'그대의 주(主)를 따로 찾지 말라. 그대가 바로 그대 자신의 주, 자기를 조복(調伏)받는 자 참모만 나기 어려운 주인을 찾은 것이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이 본래 지니는 참된 마음, 그러나 무명과 번뇌의 업에 휩싸여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은 세세생생 자유롭지 못하다. 진리의 노래 <법구경>은 초심자의 입문서이자 오래된 불자는 물론 구차 수행자의 초심을 일깨우는 지침을 모은 계승집이다. 쉽고 간결한 법문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깊이와 날카로운 함의로 현묘한 법을 전한다.



| 불광출판사 |

10분 해탈
용타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마음의 운영자인 당신, 10분간 해탈할 수 있다면?

지고한 해탈을 기원하는 용타 스님의 생활 수행 에세이 <10분 해탈>이다. 마음의 극락을 향해 궁극의 행복이라는 보물을 찾아 떠나는 수행지도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가' 묻는 이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 활불(活佛)이라 정의한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한 당신은 활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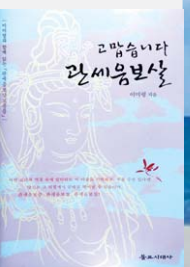


| 불교시대사 |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
이미령 지음 | 불교시대사 펴냄 | 1만원

덧없고 위태로운 인생 삶이 당신의 동반자는 누구?

삶의 갈피를 넘기며 스스로 묻는 이에게 맛갈스럽게 읽어낸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을 권한다.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 그 이름 그대로 세상의 생명체를 두루 보살피는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분이다.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내가 바로 세상의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한다. 넓고 큰마음, 언제나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삶의 주인자리를 되찾게 되기를 바란다.



| 솔바람 |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앙리 브뤼넬 지음 | 크리스티앙 루 그림
임희곤 옮김 | 솔바람 펴냄 | 1만2000원

선(禪)은 길의 어느 끝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길 그 자체다. 나비 스님과 칠없는 행자 돌망이의 떠돌이 구도행각을 담은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는 걸어 잠근 마음의 빗장을 푸는 수행동화다. 자아의 소멸을 위해 섯갓을 쓰고 발우와 지팡이만 든 채 사방팔방 누빈다. 괴로움의 원인인 존재의 집착을 비우는 여정이다. 영원한 자유는 여덟 가지 바른 길에 있다. 긍정의 힘으로 마음 챙김 하다 보면 갈피를 못 잡고 떠돌던 마음에 확고한 점 하나 찍는다.



| 우리출판사 |

날마다 읽는 부처님 말씀
홍사성 지음 | 우리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어려운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날마다 읽는 부처님 말씀>은 한역된 4야 함 중 472개의 작은 경전들로 구성된 <증일야합>의 100개 경전을 간추려 감상을 더했다. 필자의 경전 읽기 10년 공부와 맺은 뜻 깊은 결실이다. 부처님 말씀에 등불을 밝히다 보면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남다른 비법이 따로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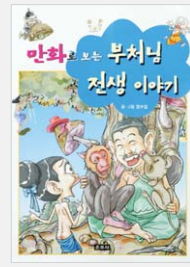


| 운주사 |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정수일 글·그림 | 운주사 펴냄 | 9000원

부처님도 무한한 과거 속에서 세세생생 중생이었다.

번뇌와 업에 의해 삼계 육도(三界六道) 생사(生死)를 윤회하던 부처님의 선업행(善業行)이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로 그려진다. 540편의 <본생경>을 만화 형식으로 엮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존경하도록 각색했다. 깨달음을 얻기까지 한없는 수행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부처님. 고난을 견뎌낸 인내와 지혜는 새싹 불자들에게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선물한다.



| 장경각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 지음 | 장경각 펴냄 | 4900원

'모든 생명을 부처님과 같이 존경합니다.'

성철 스님이 종정으로 계시는 동안 불자들에게 전한 말씀을 법어집으로 엮었다. 물질만능에 휘말린 자신을 바로 보며 사바의 참모습에 여여해진 마음을 확인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처처에 자리한 본래 부처에게 '적(寂)과 멸(滅)이 둘이 아닌 보이는 만물이 모두 관음'이라 한다. 여름의 푸른 숲 깊은 곳에서 황금빛 피코리 목소리를 뽐내며 정엄하는 부처들을 향한 환희로운 찬미다.



| 정우서적 |

붓다의 발자국
김미숙 지음 | 정우서적 펴냄 | 1만2000원

한량없는 부처님 말씀 짧다 짧은 인생에서 다 헤아릴 수 있을까?

<붓다의 발자국>은 문화 속 부처님이 걸어간 길을 통해 오늘날 부처님을 따르는 이들이 가고 있는 길과 가야할 길을 성찰한다. 본래 부처라는 절대 명제를 향한 길목에서 정검들이 되는 불교문화 서적이다. 익숙한 경전 구절들을 새롭게 재해석해 다양한 사진과 읽기 편한 문체로 불교문화를 풀어간다. 생활·상징·의례·문화의 다채로운 이야기는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불교를 모색한다.



| 조계종출판사 |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글·사진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힘겹게 찾아 온 부처님 품 안, 잠시 자리해 내 마음속 부처님 나라로 다녀감이 어떠합니까?"

역마살 넘치는 사찰 기행가 목경찬은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왜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지?"로 시작된 저자의 궁극주의 불법과 만나 날개를 달았다. 대중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량인 사찰에서 불법이 지닌 다양한 형태의 자비심으로 파도처럼 일어나는 생명의 물거품을 마음의 도화지에 그린다.



| 동국역경원 |

비유와 인연설화
법정 편저 | 동국역경원 펴냄 | 8000원

'지혜있는 사람은 정신을 기르고 어리석은 자는 육신만을 기른다.' 빈틈없는 일상에 쪼여 지내던 이들에게 추천하는 한 권의 불서다.

<현우경> 등 '본연부(本緣部)'에 속한 경전을 중심으로 부처님이 보살로서 남을 이롭게 한 선공 공덕을 짚막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로 들려준다. 포근한 감성이 전하는 연가적 진리다. <비유와 인연설화>는 잔잔한 비유의 우언(寓言)으로 부처님이 훈계하는 교리를 해석한다. 미식가가 요리를 음미하듯 의미를 읊조려다 보면 지혜의 뿌리를 다독이는 교훈이 당당한 실존으로 물입하게 한다.



국제 육조정맥선원 여름 수련회



국제 육조정맥선원이 대웅전 건립 후 두 번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초유로 이루어지는 법운선사 심명 법문을 전강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은 명안종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법의 향취에 취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인연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육조정맥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련회로 인해 8월의 서울, 포천, 광주, 부산 법문 쉽니다.**

- 일 시 : 2008년 8월 13일(수) ~ 8월 17일(일)
- 회 비 : 80,000원 (농협 100039-51-043731 예금주 : 최주희)
입금하시고 010-8670-1445로 성명 / 입금자명 / 연락처 알려주세요.
- 문의처 : 010-8670-1445 / 02-3494-0122 / 011-785-0122
-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약도 등 관련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수련회 당일 광릉내 707번 종점에 오셔서 031-531-8805로 전화주세요.

